

## 제5회 동남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|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
|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
| 학교 | 한글 | 가자마다 대학교                | 성명 | 한글 | 칸사 주이나            | 생년월일 | 1996년 02월 11일 |
|    | 영문 | Universitas Gadjah Mada |    | 영문 | KHANSA ZUTYANA .A | 학년   | 3학년           |

100

200

300

400

500

인 간 으 조 서 인 생 을 살 아 가 면 서 수 많 은  
 일 들 이 벌 어 진 다 . 우 리 가 태 어 난 순 간 부  
 터 죽 는 그 날 까 지 우 리 인 생 은 하 감  
 개 비 처 곱 계 속 돌 아 가 는 것 이 다 . 가 끄  
 줄 은 시 공 기 를 말 으 면 서 높 은 곳 까 지 올  
 라 가 는 순 간 도 있 으 며 인 생 을 반 성 하 라  
 는 뜻 으 로 바 닥 까 지 떨어 지 는 순 간 이  
 만 한 번 이 가 도 있 겠 다 고 생 각 한 다 .  
 세 상 을 처 음 만 난 아 이 조 태 어 났 을  
 때 우 리 에 게 모 든 것 이 낫 설 고 새 로 웠  
 다 . 태 어 나 시 업 마 품 에 안 기 며 아 버 와  
 천 음 으 로 눈 을 마 주 치 는 그 순 간 은 지  
 금 까 지 작 가 억 카 지 못 카 지 만 우 리 부  
 모 님 에 게 는 인 생 에 서 한 번 밖 에 없 는  
 소 중 한 순 간 일 것 이 다 . 그 날 이 후 로  
 매 순 간 이 추억 이 되 며 되 돌 길 수 없 는  
 시 간 이 되 어 버 렸 다 . 어 린 시 절 에 뛰 어  
 놀 던 기 억 이 떠 오 르 면 서 어 렸 을 때 꿈  
 을 꿔 던 모 든 순 간 들 도 떠 오 르 니 자 신  
 을 보 고 점 점 무 서 워 진 다 . 꿈 이 과 는 것  
 이 왜 이 려 게 복 잡 카 냐 고 자 기 자 신 에  
 게 문 기 시 작 했 다 . 진 짜 나 의 꿈 이 무  
 엇 인 지 모 르 는 상 태 에 서 머 뭇 거 리 면 서  
 어 떤 길 을 선택 해 야 할 지 망 설 이 기  
 시 작 했 다 . 너 무 나 도 느 게 깨 달 았 다 .

# 제5회 동남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|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
| 학교 | 한글 | 가자마다 대학교                | 성명 | 한글 | 칸사 주이나          | 생년월일 | 1996 년 02월 11 일 |
|    | 영문 | Universitas Badjah Mada |    | 영문 | KHANSA ZUYINA-A | 학년   | 5 학년            |

100

200

300

400

500

꿈이 뭐냐고 물어 보면 정해진 답이  
 없다고 생각한다. 어렸을 때 그런 질문  
 을 받으면 얼마나 쉽고 당당하게 대답  
 할 수 있었으나 나중엔 성인 되었을 때  
 꿈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 
 것을 깨달았다. 나이가 어긋지 않아도  
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  
 람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.  
 꿈이 과분인 것이 뭔지 정의할 해야 할  
 다면 우리가 미래에서 하고 싶은 것이  
 나 얻고 싶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.  
 그러나 그 목적까지 걸리는 시간과 길  
 이 짧지 않다. 그래도 자기의 꿈이 뭔  
 지 모르는 것보다 꿈이 이루어질 때까  
 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더 낫다.  
 꿈이 없는 사람은 네이비게이션 없이  
 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길과 방향을 모  
 르게 인생을 사는 것이다. 하지만 꿈이  
 없어도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 
 사람도 있다.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 
 사람은 아마 자기 자신이 잘 할 수  
 있는 것을 아직도 모를 수 있다. 그래  
 도 자기 꿈을 모르는 것이 죽을 죄  
 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꿈 없이 그냥  
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도 나쁘지 않다.

# 제5회 동남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

|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
| 학교 | 한글 | 가자마라 대학교               | 성명 | 한글 | 칸사 주이나          | 생년월일 | 1996년 02월 11 일 |
|    | 영문 | Universitas Galuh Mada |    | 영문 | KHANSA ZUYINA A | 학년   | 5 학년           |

100

200

300

400

500

인도네시아 문화에서 보통 부모님들이  
아이에게 꿈을 꼭 크게 꾀야 한다고  
말씀하십니다.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 
꿈을 크게 꾸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 
대거나 떨어지더라도 바로 바닥까지 떨어  
어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입니다.  
그런데 사회 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  
람들이 계속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경우  
가 많다. 사람을 다 똑같은 수준으로  
보며 사회에서 정해진 수준을 따르지  
못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 
못할지도 모른다. 이런 것 때문에 다른  
사람의 만족감을 위해서 힘들게 살고  
고생하는 사람이 적다고 볼 수가 없다.  
꿈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자 힘들어  
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 초심을 잃지  
않고 갈 길을 다시 찾은 수 있게 해  
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. 그러므로 꿈은  
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꼭 가져야 하  
는 것이다.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 
미래를 걸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꿈  
을 사본 그 순간은 자기의 인생을 잃  
었다.